

광주상의 FTA통상진흥센터, 수출기업 길잡이 '톡톡'

13년째 지역경기 해외판로 등 지원 컨설팅 등 8개 분야 19개 사업 추진 무역증명서 1800여건 발급 등 성과 강조병 센터장 "수출애로 해소 노력"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광주 FTA통상진흥센터가 지역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9일 광주상에 따르면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OKFTA

컨설팅 △찾아가는 맞춤형 FTA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교육 △중점업종 설명회 △글로벌 수출지원 포럼 △FTA 수출입 동향 조사 △FTA 통·번역 서비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시장 개척용 홍보물 제작 사업 등 8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상의는 FTA통상진흥센터 내에 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 등 2인의 전문가를 배치시키고 외부에는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3명의 전문관세사를 위촉해 수출 전문인력이 없는 수출기업에 컨설팅을 제공,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광주FTA센터는 수산물가공 및 제조업체 A사의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컨설팅을 진

행해 일본(1억원 상당) 및 중국에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 초보 기업인 타이백앤드백 제조업체 B사의 미국 수출 전 과정을 컨설팅해 1만3000달러의 수출 계약을 이뤄내는 등 지역 수출기업들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FTA 관련국 진출 및 진출 예정 지역 기업의 원활한 수출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계약서, 홍보물 등 각종 자료의 외국어 통·번역과 FTA 인증수출자 시장 개척용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통·번역 사업 지원대상은 FTA 관련 수출기업 10개사이며 지원규모는 업체당 1회 또는 10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 시장개척용 홍보물 제작 지원대상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중소기업 4개사

이며 업체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상의는 전국의 상공회의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관성 있는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광주상의가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 FTA 원산지 증명서, 일반무역 인증 등이 있다.

이달 현재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을 보면, 일반 원산지증명서 518건, FTA 원산지 증명서 1118건, 서명등록 및 일반 무역 인증 서류 251건으로 수출 기업들의 무역 거래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는 다양한 무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수출기업 및 FTA 미활용 기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내 수출 유관기관과

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FTA 조사·연구 등을 실시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방안 마련에 힘쓰는 계획이다.

강조병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각종 글로벌 이슈와 비관세장벽 등으로 지역 수출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광주상의 FTA 활용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2011년 2월 개소해 올해로 1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수출기업들의 FTA 관련 애로해결, 수출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TP·이모빌리티협회, 모빌리티산업 활성화 '맞손'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지난 28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이모빌리티협회)와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집 광주TP 원장과 이득은 이모빌리티협회 회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함께 다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규제

개선 등 발굴 및 제안 △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 간 기술교류 및 협력체계 기반 마련 △광주·전남 지역균형발전과 미래모빌리티 혁신생태계 구축 △미래모빌리티 밸류체인 형성 및 신시장 개척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TP는 지역 주축산업인 모빌리티 관련 중견·중소기업을 발굴 및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이모빌리티협회는 스마트 이모빌리티 정책과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지식보급, 국제교류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줄 서서 먹는 도넛이라 불리는 '노티드' 정식 매장이 30일 광주신세계에서 오픈한다. 사진은 노티드 도넛.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오픈런 도넛집 '노티드' 입점

본관 지하 1층...호남권 2번째

줄 서서 먹는 도넛이라 불리는 '노티드' 정식 매장이 30일 광주신세계에서 오픈한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관 지하 1층에 입점하는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 매장에는 도넛 21종, 소금빵 5종, 케이크 3종 등 총 29종과 커피 등 음료가 판매될 예정이다.

노티드는 2017년 서울 청담동(본점)에서 시작된 수제버거집인 '다운타운'의 후속 브랜드다. 작은 제과점 형태였던 노티드 도넛이 인기를 끌면서 SNS를 타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한남동, 성수동, 압구정 등에서 인기를 지속적으로 얻으면서 인플루언서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으며 전국적으로 오픈런 신드롬을 만들어 냈다.

광주신세계에 입점한 노티드 매장은 호남권에서는 제주에 이은 2번째 매장이자, 노티드는 아낌없이 들어간 크림으로 맛이 보장됐다는 평가가 높고, 마스크트인 '슈가베어'와 '스마일리' 등 캐릭터를 사용한 귀여운 포장 패키지가 인기 끌면서 SNS 인증이 이어지며 MZ세대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노티드는 시그니처 메뉴인 부드러운 우유 생크림을 빵 안에 가득 채운 '우유 생크림 도넛'을 시작으로 베리머치도넛, 얼그레이도넛 등 10여종 이상 확장하면서 '도넛의 성지'로 불리며 웨이팅 맛집으로 거듭났다.

대표제품은 우유 생크림 도넛, 초코 푸딩 도넛, 모카번 연유 크림 소금빵, 황치즈 크림 소금빵, 옐로우 스마일 케이크, 밀크데이 케이크 등이다. 박소영 기자

중기청, 광주전남 창업지원기관 정책협의회

광주·전남창조경제센터와 논의 지역 창업기업 위한 전주기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기청)은 지난 28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대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 창업기업 지원기관인 광주창조경제센터 및 전남창조경제센터와 '광주전남창업지원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광주전남 창업지원기관 정책협의회는 각 센터의 기존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광주·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올해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남은 기간 사업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다양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광주창경센터)에서는 올해 광주지역 창업기업들을 위해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BuS, 광주형 유니콘 육성사업 등을 수행, 지역 창업생태계를 확장하고 투자IR을 개최해 투자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광주창경센터)는 농업중심의 전남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자원을 활용한 애그테크(Agtech) 기술분야의 창업기업과 지역자원, 문화특성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지역가치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집중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창경센터는 AI분야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IR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광주전남지역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살롱 드 로컬'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앞으로 지역창업 지원기관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기관들과 소통하며 기업지원 협업방안을 모색하고 창업기업들을 전주기에 걸쳐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광주전남중기청이 중심이 돼 협의회에서 나온 공동 협업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창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중기중앙회,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 개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 참여 광주·전남 3개업체 심사 받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8일 8개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사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는 유통채널 입점을 통한 판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5대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AK)과 이마트, 온라인 분야에서는 롯데ON, 쿠팡이 품평회에 참가해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60개 업체(식품 28개, 생활용품 19개, 헬스&뷰티 7개, 패션잡화 6개 등)가 참여해 유통채널별 대면 심사를 진행했다. 광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8개 대형유통사와 올 상반기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를 진행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주·전남지역에서는 3개 업체가 심사를 받았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입점 시 수수료 우대, 팝업행사 참여,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에게 대형 유통기업 입점은 제

품을 홍보하고 사업을 확장할 큰 기회"라며 "입점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품평회가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개최되며, 하반기 품평회는 9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캠코 광주전남본부, 체납처분 효율화 컨퍼런스 개최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8일 광주·전남·제주지역 국세 및 지방세 세무 공무원 70여명을 초청해 '악성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 및 포용적 적극행정 확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제도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 국민 불편

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차상휘 캠코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세무서 및 지자체 세무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조세행정 발전과 세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